

티에르 뮈글러 (Thierry Mugler) 작품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특징에 관한 연구

김경희, 김명숙 †

목포대학교 대학원 의류학 전공, 목포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 전공

A Study of Surrealistic Expression Described in Thierry Mugler's Design

Kyung-Hee Kim , Myoung-Sook Kim †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Graduate School of Mokpo National University ·
Major in Clothing and Textiles, Division of Human Ecology, Mokpo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Surrealism, appeared in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nd affected almost all art fields,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art trends. Surrealism, not restricted from any rules and traditions but tried to produce a new appreciations in the world of dream and unconsciousness, also has affected fashion.

In this paper, I have tried to find out how the surrealism has been expressed in the modern fashion, especially in Thierry Mugler's design.

Thierry Mugler is one of the most famous designers who have expressed surrealism in their fashion designs. I have classified his designs and researched them by the application into the human body and the nature, by the metaphor and transformation of things, and by the metamorphosis of location and an optical illusion. It was based on *Depaysement* which is one of the ways in surrealistic expressions

The result of the study is followings;

First, surrealism made fashion design possible to creat unlimitedly and sublimated it anew modern beauty by attempting the varieties of the fashion, not restricted from any rules and traditions.

Second, surrealism made the general public to complete anew recognition and valuation about fashion by expressing the external character and the internal meaning on the clothes.

Third, surrealism made people to recognize, which clothes is not simply wearing thing but also one of the art expression forms.

key words : Surrealism, *Depaysement*, Modern fashion, Distortion of the form

1. 서 론

패션은 정치, 경제, 예술, 종교 등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

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패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러한 모든 요소들 가운데서도 다각적인 표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예술, 그 중에서도 미술 양식에 대한 연구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왜냐하면 미의식의 직접적인 표현물인 미술에

† Corresponding author, Tel: 061)450-2532, E-Mail: mskim@mokpo.ac.kr

나타난 미술 양식은 복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고, 특히 패션 주제로써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새롭고 신선한 영감을 제공해 주고 있고 때문이다.

20세기 초반은 미술사에 있어서 무척 풍요로운 시기 중의 하나였으며 많은 이즘(ism)이 새로운 미술 운동으로 탄생되었다. 그 중에도 1920년을 전후해서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시작된 미술 양식 중의 하나인 초현실주의는 형식이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꿈이나 무의식의 세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인간 내면의 깊은 세계까지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초현실주의가 지닌 이념과 특성들 때문에 현대 패션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그 조형적 특징이 표현되고 있다.

복식의 초현실주의 양식은 의복의 실용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보다는 디자이너가 그의 풍부한 감성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의상을 예술로 승화시킨 점에서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양식은 1930년대에 생성된 후 1980년대에 많은 디자이너에 의해 재현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재조명되고 있다.

많은 디자이너 중에서도 티에르 뮈글러(Thierry Mugler), 칼 라가펠드(Karl Lagerfeld), 장 폴 고티에르(Jean Paul Gaultier) 등이 두드러지게 초현실주의를 의상으로 표현해 내는 대표적인 디자이너들이다. 이들 디자이너 중 1990년대 모드를 이끌어갈 새 세대 디자이너의 한 명으로 꼽히는 티에르 뮈글러는 “미래파” 또는 “안티모드의 시인” 이라고 불린다. 이는 오프 꾸뛰르가 확립한 기성모드의 룰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자유분방함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라사라 1992).

본 연구는 초현실주의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고, 그 표현 기법들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티에르 뮈글러(1948~)라는 디자이너의 의상에 표현된 초현실주의를 연구함으로써 의상이 예술 표현의 한 형태임을 재인식 할 수 있다는 데에 목적을 두었고 무한한 가능성의 예술 세계를 현대 의상에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티에르 뮈글러의 디자인 분석은 초현실주의 표현 방법인 데페이즈망(Depaysement)(열화당편집부 1979a)의 원리에 의해 신체 부위의 응용, 자연물의 응용, 사물의 은유와 변형, 마지막으로 위치 변경과 착시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 조사를 토대로 학위논문의 선행 연구, 일반 서적의 관련 연구를 기초로 하였다. 그리고 1990년부터 현재까지를 티에르 뮈글러가 그의 의상에 초현실주의를

표현한 활동적인 시기로 보고 여러 패션 잡지에서 그의 작품을 선정하여 고찰하였다.

II. 초현실주의

1. 초현실주의의 형성과 이념

제 1차 세계대전은 전통적 가치관과 인간성 상실, 심각한 사회 불안과 정신적인 혼란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허무와 절망을 안겨다 줌으로써 깊은 회의를 느끼게 했고 소수의 전위적인 작가들이 점점 파괴적인 예술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다다이즘이 탄생하게 되는데, 다다이즘은 양식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태도였으며 스위스, 독일, 프랑스로 퍼진 미술·문예상의 반항 운동이다(로즈마리 램버트, 김창규 역 1991). 다다이즘은 기존적 가치에 복수하는 뜻으로 반예술, 엉뚱함을 부르짖으며 빠르게 번져 나갔지만 불합리성과 반예술을 강력히 주장하면서도 이성이나 합리적인 것을 부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막을 내리게 되었다(박명희 1986). 바로 이러한 대안에 맞게 다다이즘의 발전을 시도하며 나타난 것이 초현실주의다.

그리고 다다이즘에서 생성된 무의식이 초현실주의에 있어서 꿈과 환상적인 무의식의 세계로 체계화되어졌고 다다이즘에서 발견된 우연의 법칙은 조형 양식으로써 뿐만 아니라 초현실주의 세계를 표현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곽미영 1995). 무의식이란 정신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통제할 수 없는 최하위의 의식을 무의식이라 한다(이효진 1994).

초현실주의는 다다이즘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으며 종래의 예술 행동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인간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고 논리(論理) 이전의 상태(임영방 1993)로 되돌아가려는 인간 정신의 해방을 이루고자 하는 길을 열어 주었고 초현실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예술은 그들의 욕망을 실현하는 인식과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었다.

반항적인 움직임을 보인 초현실주의라는 용어는 시인 아폴로네르(Guillaume Apollinaire)가 1917년 공연된 “피레지아의 유방(Les Manelles de Tiresias)”이라는 자신의 희곡에서 “Surrealism”이란 말을 사용함으로써 최초로 명명되었다. 1924년 앙드레 부르통(Andre Breton : 1896 - 1966)에 의해 제 1차 초현실주의 선언문이 발표됨으로써

공식적으로 정리되었고 새로운 운동의 이념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Patruck Waldberg 1965a). 앙드레 부르통이 제 1차 초현실주의 선언문에서 정의한 초현실주의는 다음과 같다.

“남성 명사. 순수한 자연 현상으로써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입으로 말하듯 붓으로 쓰는, 또는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간에 사고의 참된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 이것은 또 이성애에 의한 어떤 감독도 받지 않고 심미적인 또는 유기적인 관심을 완전히 떠나서 행해지는 사고의 받아쓰기” 이다(이화현대미술연구회 1994).

초현실주의는 이처럼 사회적 규범이나 인습,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의하여 도외시되었던 꿈, 이상, 환상 등을 이성의 우위에 놓았던 것이고 이성이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초현실주의는 이성과 외부의 어떤 미학적 혹은 도덕적 편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마음의 순수한 자동현상으로 무의식적인 정신세계를 통해 인간 정신의 회복과 해방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초현실주의자들의 행동 근거를 현상 세계에서 찾는다면 무의미한 일이다(Patruck Waldberg 1965b).

하프만(W. Haftman)은 초현실주의가 이전까지 도외시되었던 사고에 의해서 통제 받지 않고 꿈에서 연상되어진 특수한 형태에서 차원이 높은 리얼리티에 근거를 두었다고 하였다. 즉, 초현실주의는 능동적인 사고와 표현 방식으로 리얼리티의 세계를 표현한다는 것이다(W. Haftman 1960).

초현실주의의 이념은 정신분석 학자인 프로이트(Sigmund Freud)에 의존하고 있다.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은 인간 정신 활동의 심층에 감추어진 무의식에 관계되는 언행이나 개개인의 품성에 감추어진 무의식에 대한 연구와 자유 연상법에 의한 심층을 연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신 질환을 치료하는 의학 분야의 학설이다(프로이트, 김대규 역 1978). 프로이트는 인간 정신 활동을 깊이 연구하며 성적 충동을 기본 미학으로 삼고 잠재의식의 존재와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프로이트의 연구는 초현실주의자들의 무의식 세계의 탐구와 인간성의 재발견을 위한 바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초현실주의는 이성의 지배하에서 표현하려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 내면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그들의 표현은 오토마티즘(Automatism)과 데페이즈망(Depaysement)의 방법을 통해 표현되어져 나타났다(이용익 1991). 이상과 같이 초현실주의는 잉태 과정이나 시대 상황, 그 정신의 전개에서 이전까지 밝혀지지 않은 무의식 세계의 중요성, 즉 상상의

무한한 자유와 환상성의 추구가 20세기 예술과 정신 문화에 반영되어 오늘날 또 다른 의식 세계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2. 초현실주의의 표현 방법

초현실주의자들은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있는 비합리적인 것을 이성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새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오토마티즘(Automatism)과 데페이즈망(Depaysement)을 표현 기법으로 창안하였다.

1) 오토마티즘(Automatism : 자동기술법)

초현실주의에 있어서 오토마티즘의 근원은 다다이즘의 우연의 법칙에서 발전되어진 것이다. 이 우연의 법칙은 초현실주의에 와서 오토마티즘으로 정착이 된다. 오토마티즘은 자동 기술법, 또는 정신 자동법을 의미하며, 이는 일체의 이성의 통제나 미적, 도덕적 선입관이 배제된 경지에서 행해지는 사고의 받아쓰기의 한 방법이다.

미술의 영역에서는 자동적 소묘라 하여 외계의 대상과는 관계를 맺지 않고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순수하며 무한한 현상을 무의식의 정신 현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실체를 노출시켜 주고 그 정신을 사상과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다(Sarane Alexandrian 1977). 오토마티즘은 무의식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술에 있어서는 작가 자신이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고 형식이나 관념에서 벗어난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의 모든 형태의 사고로 시나 미술의 창작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된 것들은 추상화나 때로는 마술 세계와도 같아 보이는 연극 대본을 상기시키는 형태가 있고 구체적인 기호의 형태를 나타낸다(최향숙 1989a)

오토마티즘의 방법을 표현 기법으로 선택하여 활동을 한 작가로는 앙드레 마송(Andre Masson), 호안 미로(Joan Miro), 로베르토 마타(Roberto Matta) 등이 있다. 이들은 반의식 상태에서 강한 내적 충동을 선과 형태로 표현하며 그 위에 색깔을 가미하여 더욱 풍부한 연상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을 통해 인간의 내적 세계에 우위를 둔 비형상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다(최운미 1993a).

오토마티즘은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 심성 그 자체를 채택함으로써 초현실주의 작가들에게 새로운 형상성을 부여했다. 또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개성으로 독자적인 세계를 만들어 내게 된다.

2) 데페이즈망(Depaysement : 전위법)

오토마티즘과 함께 초현실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인 데페이즈망을 만들어 낸 것은 초현실주의이지만 역시 그 뿌리는 다다이즘에서 찾을 수 있다. 이질적인 사물들끼리의 비합리적인 만남으로 그 사물의 리얼리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연관성이 교체되거나 혹은 연결되는 데 이러한 데페이즈망의 방법이 초현실주의로 전이된 것이다(한상구 1989).

데페이즈망은 물체나 영상을 그것이 놓여 있는 본래의 일상적인 질서나 배경, 분위기에서 떼어 내어 전혀 그 사물의 속성과는 연관성이 없는 엉뚱한 장소에다 놓음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외관상 이질적인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이다(열화당 1979b). 이 방법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들을 연결시키거나 불가능한 결합을 통하여 현실에서의 불가능한 정서나 사고, 감정들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오토마티즘이 의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의식을 형상화했다면, 데페이즈망은 작가의 의도가 개입된 초현실주의적 표현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김일 1993a).

데페이즈망의 방법을 표현 기법으로 선택하여 활동한 작가로는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 등이 있다. 이들은 사진과 같이 정밀한 표현으로 현실 세계에서 조화될 수 없고 양립할 수 없는 것이 함께 병존하는 현상 세계와 꿈의 세계를 표현하려 하였다(최윤미 1993b). 그리고 각각 유형을 달리해 가면서 의외성의 놀라운 것들을 미적 상태가 되도록 데페이즈망의 방법을 사용하여 표현해 내었다.

이러한 표현 방법들은 발전적인 연구가 거듭되어 모든 예술 분야에 큰 영향을 주었다. 패션에 있어서도 초현실주의적 표현 양식들은 많은 영향을 주어 오토마티즘 보다는 데페이즈망 기법들이 많이 나타났다.

3. 현대 패션과 초현실주의

현대 패션은 20세기에 들어와 아르누보 시대를 맞이하면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현대만큼 복식이 다양하게 표현된 시대는 없었다. 그렇다고 전혀 새로운 양식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변화해 온 의복 형태를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났다. 그리고 패션은 여러 가지 예술의 영향과 상관 관계 속에서 깊이 교류해 가며 발전을 더 하게 되었다.

세계 대공황과 전쟁으로 인한 사회 불안과 정신적 혼란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초현실주의는 1930년대와 1940년대에 패션, 패션광고, 윈도우 디스플레이, 장신구까지 초현실주의 형태가 유입되어 나타났다(Richard Martin 1987a).

초현실주의 표현의 대중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1930년대 후반에 주요 패션 잡지인 Vogue<그림 1>나 Harper's Bazaar 등은 초현실주의 스타일의 모드를 보급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 분야까지 영향을 주었고 그 모든 예술분야 곳곳에 패션의 이미지를 도입하여 표현하였다. 이렇게 몇몇 초현실주의자들이 패션의 이미지를 이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또는 직접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의복의 특성과 본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패션의 특성과 의복의 본질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초현실주의자들은 패션과 관련된 도구인 재봉틀과 의복과 여성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삼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 예를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데 Joseph Cornet은 1937년 Harper's Bazaar에 실은 그의 폴라주작품 "The pulse of Fashion"에서 재봉틀이 의복뿐만 아니라 여성을 창조해 내는 것을 보여 주었는데 의복은 여성으로, 재봉틀은 여성을 창조해 내는 물건으로 표현하였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이처럼 일상적인 모든 사물을 대상으로 그 특성들을 찾아 새롭게 표현해 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패션에까지 영입되어 일상적인 모든 사물을 대상으로 자유로이 의상에까지 표현하기에 이른 것이다.

1980년대의 패션을 리드한 대표적인 디자이너 Elsa Schiaparelli(1890-1973)는 당시의 유명한 예술가들과 친교를 맺으며 초현실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들여 그녀의 의상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도입시켰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구두를 거꾸로 쓴 모자 <그림 3>, 파충류를 새긴 단추와 액세서리, 사무용 책상 서랍을 본뜬 포켓을 단 데스크 수트(Desk Suit), 진홍색의 바닷가재와 파슬리를 그려 넣은 이브닝 드레스 등이 있다. 그의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 뛰어난 독창성과 인습에 얽매이지 않고 꿈과 환상을 표현해 나가는 그의 아이디어는 패션계에 큰 충격을 주어 현대 패션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Anne Stegemeyer 1981).

전쟁과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특별한 환상들을 증진시켜 태어난 초현실주의는 원래 순수 예술 분야에서 출발했지만 다른 어떤 예술보다도 패션에 끼친 영향이 컸다. 현대 패션은 이처럼 초현실주의의 깊은 영향과 아이디어를 제공받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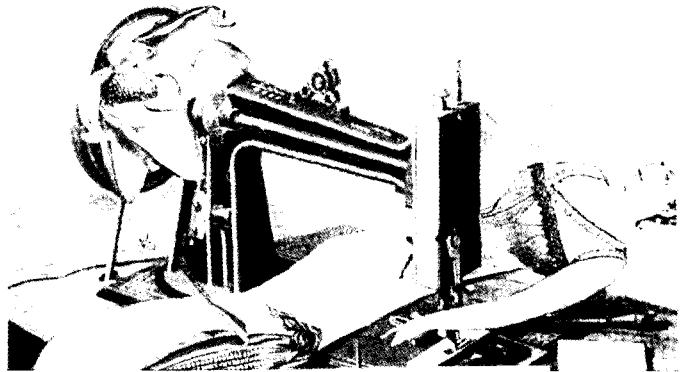
디자이너의 개성에 맞게 표현되어 예술의 경지로 점차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의복이 단지 옷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이 아닌 새로운 미적인 개념으로 확대시켜 나아갔다.

그리고 패션이 초현실주의로부터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표현의 영역을 넓혀갔다면 초현실주의는 패션을 통하여 그 위치를 명백히 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김일 1993b).



[그림 1] Cover of Vouge
(Fashion and Surrealism, p.166)



[그림 2] Untitled (Fashion and Surrealism, p.15.)



[그림 3] Schiaparelli Shoe Hat
(Fashion and Surrealism, p.111.)



[그림 4] 눈을 모티브로한 가죽 자켓
(패션디자인 발상 트레이닝 3. p.98.)

Ⅲ. Thierry Mugler 의상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1. 티에르 뮈글러의 작품세계

티에르 뮈글러는 초현실주의적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디자이너에 알맞게 전통에 구애받지 않고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호하며 풍부한 감성을 자유롭게 표현해 내고 있다.

그는 프랑스 북동부의 스트라스부르그(Strasbourg)에서 태어나 무용수가 되고 싶어서 오페라 발레단에 입단하였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의상을 스스로 스케치하거나 장식하는 것을 좋아했던 뮈글러는 이 시기에 스트라스부르그에 있는 장식 예술 학교에서 수업을 받았는데 그의 파격적인 의상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괴짜로 생각했지만 남의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했다.

뮈글러는 자신의 의상에 대한 영감을 고향인 스트라스부르그에 있는 성당의 건축에서 얻었다. 그곳이, 그의 자유롭고 다양한 형태의 기이한 의상을 탄생시키게 된 출발점이며 동시에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1984년 그는 그의 패션 하우스 10주년 기념으로 6천여 명의 관람객을 위한 쇼를 열었다. 거기에서 신비에 싸인 듯한 패션 행렬이 우스꽝스럽게 연출되었던 바, 여기에 대해 뮈글러는 “나의 규칙은 형식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그는 현대 여성은 다양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데 입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그의 패션관은 지금까지 여성의 몸과 마음을 속박한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 하고 결코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없는 새로운 스타일과 입기 쉽고 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뮈글러는 컬렉션에서 항상 새로운 소재와 라인, 다양한 아이디어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그의 디자인들은 강렬하고 아름다우며 영원히 변치 않는 미래의 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뮈글러의 큰 특성이기도 하다. 그는 20년 전부터 자신의 예술을 우리의 꿈과 현실 사이의 매개체로 삼고 자신의 세계를 세워 왔다(디디에 크롬바크 1989).

그의 우수한 창작성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믿음이며 이런 믿음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으로 해서 진정한 최고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타고난 감각과 급속한 패션의 변화 속에서 자신만의 독창성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는 의상의 예술적 가치를 높여 준 현대 패션계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디자이너이다.

2. 티에르 뮈글러 작품의 초현실주의적 양식

초현실주의 표현방법 중에서 사물이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그 사물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장소로 이동하는 데페이즈망 기법들이 패션에 있어 여러 형태로 표현되어 왔다.

뮈글러는 이러한 초현실주의적인 기법들을 의상에 적용시켜 발표하여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본 연구는 뮈글러의 의상에 나타난 초현실주의를 데페이즈망의 표현 기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해 보았다.

1) 신체 부위의 응용

신체의 일부분이 다른 부분과 독립되어져 복식에 초현실적인 오브제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것으로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눈, 입술, 가슴 등이다.

오브제는 사물, 객체, 대상 등의 뜻이 있으나 초현실주의적 예술가들은 사물의 본래 위치와 관념까지 변화시키고 새로운 이름을 부과함으로써 본래의 정체를 변화시켜 초현실주의적인 오브제를 만들어 낸다(김일 1993c).

〈그림 4〉은 의식적인 시각과 무의식적인 영상이 가능한 초현실적인 눈을 모티브로 가죽 자켓의 커팅이 된 부분과 소매에 접목시켰고 넓은 가죽띠에 두드러진 하나의 눈을 넣음으로써 그 아래 달린 금속 고리와 함께 조화를 이룬 목걸이가 시각적인 효과를 크게 만든 작품이다. 인간의 여체 중에서 가장 신비스럽게 느껴지는 가슴 부분에 눈을 부착시켜 디자인 된 〈그림 5〉의 눈은 워코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관능적인 심벌인 입술이 핸드백으로 제작되어 눈과 함께 초현실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림 6〉은 감추어져야 할 가슴을 금속판과 플라스틱을 각각 사용하여 의복 밑에 있는 신체를 의복 위로 표현해 냄으로써 감춤과 드러냄의 역설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제까지 감추어져 있던 가슴을 드러냄으로써 인간 내면에 대한 비합리적인 사회적, 도덕적, 정치적 강박관념에서 해방된 순수한 감각을 느끼게 한다(김명주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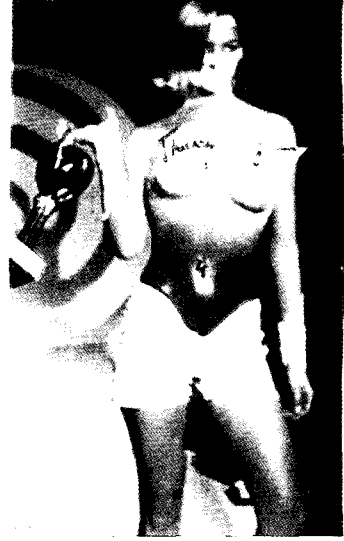
그리고 가슴만이 아니라 가슴에서 허리까지 신체를 그대로 떠낸 형태가 있기도 하다(그림 7). 1986년 뮈글러의 “황금 손톱”이 등장했을 때 영국 보그지는 그것을 “최후의 몸짓”이라고 표현하였다(그림 8). 이처럼 의복이 아닌 신체에 직접적으로 초현실주의적인 상상의 산물을 표현해 내기도 하였다.



[그림 5] 눈을 형상화한 디자인
(패션 디자인발상 트레닝 2, p.134.)



[그림 6] 의복위로 표현한 가슴
(Book Moda 91 S/S, p.271.)



[그림 7] 신체를 그대로 떠낸 디자인
(Fashion World 제 5호 ,p.10.)

2) 자연물의 응용

자연의 소재가 복식에 의해 새롭게 표현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복식 형태에서 벗어나 초현실주의로 표현된 것이다. 초현실주의자들이 즐겨 쓰던 자연의 소재는 주로 해양 생물과 동물, 새, 꽃, 나무, 나비 등이 있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로 꽃과 잘 연결시킨다. 뒤킴 역시 꽃을 대상으로 복식을 표현함으로써

여성의 아름다움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림 9>은 꽃을 개성 있게 조형화 시켜 복식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과시한 작품이다. <그림 10>은 한송이 꽃을 형상화시킨 작품이다. <그림 11>은 베고니아 꽃을 드레스로 형상화한 것으로 전체적인 형태에 있어서 부드럽게 변형됨을 느낄 수 있다.



[그림 8] 황금손톱
(Fashion and Surrealism, p.103.)



[그림 9] 꽃을 조형화한 디자인
(Book Moda 91 S/S, p.291.)

이렇게 꽃과 어우러져 표현되는 여성의 자연미는 초현실주의자들의 반이성적인(irrational) 그들의 입장을 반영한다(최윤미 1993c).

동물적인 소재로 초현실주의자들은 새의 날아갈 듯한 가벼움과 우아함을 여성과 동일시하여 자주 사용하였는데 Mugler의 의상에서도 새를 소재로 한 깃털 드레스 <그림 12>와 날아다니는 듯한 새를 표현한 드레스도 있다.

그리고 상반신 전체에 낙타를 사실적으로 형상화시키고 <그림 13>, 소의 상징물인 뿔을 가슴 한가운데 달고 금속으로 강한 인상의 소의 이미지를 심어 줌으로써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충격을 주었다(그림 14). 이와 같이 자연물을 응용함으로써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패션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변형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주었다.

3) 사물의 은유와 변형

복식과 관계가 적은 일상용품들을 복식 위에 배열하여 우연히 만남을 시도한 것으로 사물의 본질을 깨닫게 해 준다.

<그림 15>는 S.Dail의 서랍 달린 비너스로 E. Schiaparelli의 Desk Suit가 이를 재연한 것인데, Mugler가 이를 다시 한 번 재현하였다(그림 16). 여기서 서랍은 여성의 신체로

들어가는 근심, 갈망, 열망 등을 내포한 입구와 통로로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Richards Martin 1987b).

<그림 17>은 카우보이 모자의 형태를 스커트로 바꿔 만든 것으로 아래 부분에 모자 끈까지 달려 있어 유머러스하다. 디스코 텍 입구의 간판을 연상하게 하는 의상 <그림 18>의 허리 양옆에 달려 있는 길고 가느다란 줄들은 마치 간판의 화려한 네온사인에서 흘러나오는 빛 줄기들 같이 보여 무척 이채롭다.

뿐만 아니라 금방이라도 앞으로 달려 나갈 것 같은 살아 있는 듯한 오토바이로 변신한 의상 <그림 19>와 여러 종류의 나침반, 자동차 열쇠, 금속들로 이루어진 의상 <그림 20>은 사물을 복식으로 변형시켜 그 효용 가치가 더욱 높아진 것이다. <그림 21>은 우아한 자태의 드레스를 입고 이 드레스에 어울리는 모자와 양산까지 겸한 여성이 허리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은 권총을 차고 있다. 그리고 <그림 22>는 스커트와 액세서리인 귀걸이 까지 달러(\$)를 의미하는 상징물로 만들어 표현한 것이다.

이것들은 오브제한 사물을 복식의 구조적 형태에 맞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형상화하여 고정관념에 충격을 줌과 동시에 모든 사물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복식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 한송이 꽃을 형상화한 디자인
(Collection II 95-96 A/W, p.21.)



[그림 11] 베고니아 드레스
(Fashion and Surrealism, p.170.)



[그림 12] 깃털 드레스 (Fashion and Surrealism, p.189.)



[그림 13] 낙타를 형상화한 드레스 (Collection II 92 S/, p.51)



[그림 14] 소를 상징화한 디자인 (Collection II 92 S/, p.42.)



[그림 15] S. Dali의 서랍달린 비너스 (Fashion and Surrealism, p.120.)



[그림 16] 서랍달린 디자인 (패션디자이너 발상 트레닝 2, p.128.)



[그림 17] 모자를 형상화한 디자인
(Collection II 92 S/S, p.44.)



[그림 18] 디스코볼 간판을 연상시키는 디자인
(Best Designers 90-91 A/W.)



[그림 19] 오토바이를 이미지화한 디자인
(Collection II 92 S/S, p.50.)

4) 위치 변형과 착시

의복의 앞과 뒤가 바뀌거나 속옷이 겉옷으로 표현된 경우, 위치를 앞으로 옮긴 버슬 등과 같이 복식 품목간의 위치가 변하는 것이며 입체적인 특성을 평면으로 나타내 시각적 착시를 이용한 것이다.

대중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여성용 속옷이 하나의 패션 주제로 부각되어 일상적인 용도에 보이지 않게 입던 코르셋과 같은 속옷이 디자이너들에 의해 외형적으로 드러나 겉옷화 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티에르 뒤편의 의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그림 23).

이처럼 사회적 인습이나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에 억눌려 왔던 상상력을 표출해서 상상적 무질서를 구축해 낸 것으로 일반적인 미적 관념을 바꾸어 놓았다(Suri Gablik 1979). 상상력은 경험에 저장된 인상들을 바꾸고 재결합 할 수 있는 능력으로써 창출과 독창력의 원천이 된다.

(그림 24)는 스커트의 양옆을 부풀린 원피스로 인체의 초현실적 변형의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의상의 드레퍼리를 복식의 독특한 액세서리로 전이시킨 예도 있는데 복식 품목 안에서의 전이는 아마도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오브제는 복식 품목 안에서 특별한 역할과 위치를 바꾸어

도 복식으로 지속되기 때문이다(김윤민 1991).

두 팔이 여성의 가슴을 감싸고 있고 나머지 두 팔은 실제 팔로써 4개의 팔이 달려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그림 25)는 보는 이로 하여금 마법의 세계에 빠진 느낌을 주고 있다. 두 개의 옷을 겹쳐 입는 듯한 입체미로써 이중 형상을 보게 하는 자켓(그림 26), 투명 인간이 거미줄로 만든 의상을 입은 것 같은 의상(그림 27)은 인간의 비밀스런 내면세계를 드러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90년대의 패션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살펴보면 재료 면에서는 아주 다양함을 볼 수 있는데 비닐, 고무, 금속, 에나멜과 같은 합성적인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제약 없는 표현의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해주고 있다. 특히 뒤편려는 라텍스 또는 고무섬유가 섞인 비치는 스트레치 소재의 유동성을 이용하여 여성의 관능미를 더욱 글래머러스하게 강조함으로써 그의 디자인의 무한한 상상력과 가능성을 강렬하게 심어주고 있다(조경희 2003).

그 외에 디자인의 형이나 색채, 선, 재질감 등으로도 시각적인 착시를 일으키도록 유도하기도 하며 이러한 것도 자주 응용되어 나타나 새로운 흥미를 자아낸다.



[그림 20] 여러사물을 배열화 시킨 디자인 (Fashion World 제 5호, p.11.)



[그림 21] 드레스에 권총이 달린 디자인 (Collection II 92 S/S, p.52.)



[그림 22] 달려를 상징화한 디자인 (Collection II 92 S/S, p.46.)



[그림 23] 속옷을 겹쳐놓은 디자인 (Collection II 92 S/S, p.46.)



[그림 24] 스커트 양옆을 부풀린 원피스 (Book Moda 91 S/S, p.290.)



[그림 25] 팔이 넷달린 디자인 (패션 디자인 발상 트레이닝 2, p.129.)



[그림 26] 이중형상화한 자켓
(Collection II 95-96 A/W, p.23.)



[그림 27] 거미줄 의상
(Collection II 90-91 A/W, p.223.)

IV. 결 론

패션은 예술 표현의 한 형태로서 분위기를 창조하고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반응하게 하는 힘이 있다.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성장한 초현실주의는 예술 세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와 주었고 패션에도 광범위하고 영속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티에르 뒤킴러는 환상적이고 서정이 넘치는 자유를 표현하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디자이너로서 초현실주의를 추구한 대표적 디자이너라 할 수 있다. 뒤킴러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영감은 고향인 스트라스 부르크 성당의 건축이 미지라고 하며, 거기에서 그는 자유롭고 다양한 형태의 기이한 의상을 탄생시키고 있고, 한가지 이미지를 테마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의상으로 만들어내는 재능은 뒤킴러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작품은 일반적으로 스포티하거나 매니쉬한 감각의 모던한 작품이 많으나 그 근본의 흐름은 화려하고 환상적인 로망티시즘이라고 할 수 있다. 뒤킴러는 주로 라텍스, 또는 고무섬유가 섞인 비치는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하여 여성

신체의 두드러진 특징들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거나 더 관능적으로 과장되게 강조하였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스트레치 비닐과 같은 신소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외, 본 연구를 통해 그의 작품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표현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형식이나 전통에 구애받지 않는 패션의 다양화를 시도함으로써 의상의 무한한 창작을 가능하게 하였고, 현대적인 새로운 미로 승화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외적 특성과 함께 내적인 의미를 의상에 표현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패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가치관의 성립을 가져오게 하였다.

셋째, 단순히 입는 옷으로서의 기능에서 벗어나 의상이 예술 표현의 한 형태임을 재인식 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뒤킴러 의상의 초현실주의적 표현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의 분류방법은 주로 데페이즈망의 원리에 입각하여 분류되었음을 밝혀 둔다. 그 밖에 조형적 특징 면에서

좀 더 깊게 분석하지 못했음에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의 의상을 연구하여 예술 사조와 접목시킨 후속 연구가 계속 이루어졌으면 한다.

VI. 참고 문헌

1. 광미영(1995).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복식양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박사논문** 1-8
2. 권혁미(1987). 20세기 Mode의 조형성 표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4-76
3. 김 일(1993). Elsa schiaparelli 작품연구(1). **국민대학교 조형 논집**. 12:397-403
4. 김윤민(1991). 초현실주의 조형성과 21세기 복식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8-29
5. 김명주(1993). 현대복식과 에로티시즘적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5-26
6. 디디에 크롬바크, 우정길 역(1989). **패션의 역사**. pp330-335, 도서출판 창
7. 라사라(1992). **세계의 패션디자이너 2**. pp178-181, 도서출판 라사라, 서울
8. 로즈마리 램버트, 김창규 역(1991). **20세기 미술**. pp40-44, 애경산업사
9. 박명희(1986). 20세기 미술사조가 현대의상에 미친 영향. **건국대학교 학술지** 30:345-348
10. 열화당 편집부(1979). **현대미술 용어사전**. pp40-42, 열화당
11. 이용익(1991). 초현실주의가 현대복식에 미친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8
12. 이화 현대미술 연구회(1994). **현대미술의 동행 2**. pp165-169, 눈빛
13. 이효진(1994). 현대의상의 직물문양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의 무의식 개념에 관한 연구. **복식학회지** 22호. 5-7
14. 임영방(1993). **현대미술의 이해**. pp173-175.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
15. 정영진(1988). 초현실주의에 표현된 Eroticism에 관한 연구. **공주사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6
16. 조경희(2003). **스트레치에 소재에 의한 현대 패션의 미**. pp113-115. 경춘사, 서울
17. 최윤미(1933). 복식에 표현된 초현실주의 양식 및 그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1):140-142
18. 최향숙(1989). 초현실주의가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12
19. 프로이드, 김대규 역(1978). **꿈의 해석**. pp630-632, 동서문화사
20. 한상구(1989). 초현실주의 회화에 나타난 기법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17
21. Anne, S.A.(1981). **Who's Who in Fashion**. N.Y : Fairchild Publication. 48-49
22. Marilyn J.H., Lois M.G.(1981). **The Second Skin**. Boston : Houghton Mifflin Co. 350
23. Patrucek Waldberg(1965). **Surrealism**. London : Thames and Hudson, 16-78
24. Richard Martin(1987). **Fashion and Surrealism**. New York :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 Inc. 11-14, 217
25. Sarane Alexandrian(1977). **Surrealist Art**. Praeger Publishers. 8
26. Suri Gablik(1979). **Conversation with Rene Magritte**. Studio Mars Blavier. 647
27. W.Haftman(1960). **Painting in the 20th Century**. N.Y:Freerick A.Praeger,190
28. **Best Designers**. Gap Japan. 90-91 A/W.
29. **Book Moda**, International Edition, 91 S/S.
30. **Collection II**. Gap 90 S/S.
31. **Collection II**. Gap 90-91 A/W.
32. **Collection II**. Gap 91-92 A/W.
33. **Collection II**. Gap 92 S/S.
34. **Collection II**. Gap 94 S/S.
35. **Collection II**. Gap 95-96 A/W.
36. **Collection Printemps**(1996) - t. (Thierry Mugler)
37. **Fashion World**. 라사라. 제5호.